

'펜트하우스' 시즌2 베일 벗었다... "더 살벌한 이야기"

오는 2월19일 첫 방송

티저·선공개 영상 공개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2가 오는 2월19일에 첫 방송된다.

1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님스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2일 방송된 SBS '펜트하우스' 스페셜 방송 '펜트하우스 히든룸-숨겨진 이야기'는 전국 가구 시청률 기준 9.8%를 기록했다.

전날 방송된 '펜트하우스' 스페셜 방송에는 이자아, 김소연, 유진, 엄기준, 신은경, 봉태규, 윤종훈, 박은석, 윤주희 등 주역 9명이 출연해 시즌1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다. MC는 신동엽과 장도연이 맡았다.

펜트 키즈인 김현수, 진지희, 김영대, 한지현, 최예빈, 이태민 등 6명도 출연해 MC 재재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스페셜 방송에는 '펜트하우스' 시즌2 첫 방송일과 함께 맛보기 영상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펜트하우스' 시즌2는 월화극에서

금토극으로 편성이 변경돼 오는 2월 19일 시청자들을 만난다.

이와 함께 약 30초 분량의 티저 영상과 1분 분량의 선공개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시즌1 배우 대부분이 모습을 다시 드러냈다.

시즌1에서 펜트하우스를 차지하고 승리에 찬 모습을 보였던 '천서진'(김소연)과 '주단태'(엄기준)는 물론 '하윤철'(윤종훈), '이규진'(봉태규), '강마리'(신은경), '고상야'(윤주희) 등 여전히 욕망과 허영의 삶에 빠져 있는 헤라클레스 사람들의 모습이 예고됐다.

먼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공연하는 천서진의 모습에 이어 "진정한 내 영혼의 반쪽을 만난 것 같아"라는 주단태의 내레이션이 울려 퍼진다.

이내 오윤희의 이름을 찢어질 듯 날카롭게 부르는 천서진의 목소리가 들린다. 뒤이어 검은 모자를 눌러쓴 '오윤희'(유진)가 희미한 미소로 등장하고, "왜 이렇게 겁먹었어 천서진"이라고 말한다.

시즌1에서 스스로 흉기로 자신의 목을 찌르고 바다에 쓰러졌던 오윤희

가 다시 등장하면서 새로운 반격을 예고했다.

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베로나'(김현수)와 누군가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주석훈'(김영대)이 모습을 드러낸다.

하윤철을 향해 분노하며 목을 조르는 천서진의 모습도 이어진다. 그 뒤로 "심수련씨를 죽인 진범이"라는 목소리에 맞물려 "걱정하지 마. 내가 데리고 있을테니"라는 '로건리'(박은석)의 심각한 표정이 지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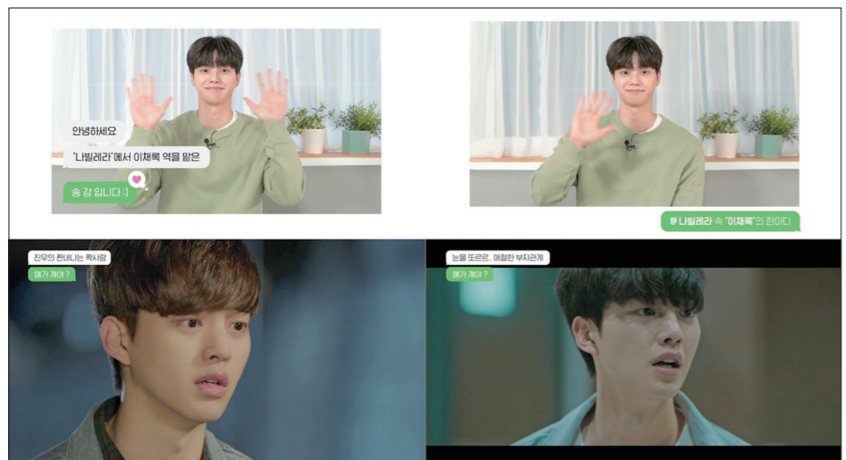
여기에 누군가가 흰 면포를 얼굴에 뒤집어쓰고 발버둥 치는가 하면, "역시 대단한 여자야"라는 주단태의 섬뜩한 미소가 긴장감을 높인다. 마지막에는 "나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어"라는 오윤희의 서늘한 목소리와 얼음물로 가득 찬 수조에서 눈을 번쩍 뜬 천서진이 교차되면서 끝을 맺는다.

이 밖에도 천서진은 선공개 영상에서 찢어진 빨간 드레스와 자신을 저주하는 벽보를 보고 분노를 터트리는 모습이 담겨 향후 전개될 내용에 궁금증을 불러왔다.



뉴스스

'스위트홈 차현수' 송강, 발레리노 변신...tvN '나빌레라'



배우 송강이 스물셋 발레리노로 변신한다.

올 상반기 방송되는 tvN 새 드라마 '나빌레라'는 나이 일흔에 발레를 시작한 '낙출'과 스물셋 꿈 앞에서 방황하는 발레리노 '채록'의 성장을 그린 사제듀오 청춘기록 드라마다.

동명의 다음 웹툰 '나빌레라'를 원작으로 '38사기동대', '청일전자 미쓰리'의 한동화 감독과 '터널'의 이은미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송강은 극중 뒤늦게 시작한 발레에 남다른 재능을 갖고 있지만 녹록하지 않은 현실에 방황하는 스물셋 청년 '채록' 역을 맡았다.

넷플릭스 '좋아하면 울리는', '스위트홈'에 이어 '나빌레라'로 3연타 흥행을 예고, 송강은 20대 청춘이 느끼는 고민과 불안함을 진솔하게 표현하며 한층 성숙해진 연기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나빌레라' 측은 13일 송강의 발레

포즈와 분방사수 뚱거가 담긴 '스위트홈 차현수, tvN 나빌레라로 돌아옵니다!' 영상을 공개했다.

스물셋 발레리노로 분한 송강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손동작이 한 마리의 백조를 연상시키며 보는 이의 시선을 강탈하는 것. 송강은 "발레라는 신선한 소재 덕분에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이라며 "정말 따뜻한 드라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송강의 tvN 활약상도 담겼다. 앞서 송강은 데뷔작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에서 소림(조이 분)을 짝사랑하는 절친 '백진우' 역으로 눈도장을 찍었다. 소림을 오랫동안 좋아하며 가슴앓이 하는 남사친으로 '진우파'를 양산해내며 안방극장에 뜻밖의 실력을 선사했다.

송강은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에서 하립(경정호 분)의 신인 어시스턴트이자 동유럽에서 온 음악 천재 '루카' 역을 열연한 가운데 빛나는 비주얼과 순수한 매력, 정경호와의 애절한 부자 케미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박세리·옥주현·권일용, AI와 '세기의 대결'

29일 첫 방송

SBS 신년특집 '세기의 대결! AI vs 인간'에서 진검 승부를 겨룰 AI와 인간 대결자의 라인업을 전격 공개했다.

13일 SBS에 따르면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 후속으로 방송되는 신년특집 '세기의 대결! AI vs 인간'은 오는 29일 오후 10시에 첫 방송된다. 총 5부작으로 이뤄져 있다.

'AI VS 인간'은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과 인간 최고수가 대결을 벌이는 AI 버라이어티 쇼다.

박세리, 옥주현, 권일용, 로이스 김슨 등 각 분야의 1인자들이 AI와 대결에 나서며, 6개 종목에서 서로의 자존심을 걸고 승부를 벌일 예정이다.

첫 번째 대결 주자는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컬 디바 옥주현이다. 옥주현은 목소리와 가창력을 따라가 힘들기 쉬운 가수 중 한명이다. 타 모창 프로그램에서 수차례 섭외됐지만, 지난 9년 동안 그녀의 목소리를 모방할 수 있는 대결자를 결국 구하지 못했다. 그런 그녀가 첫 모창 대결을 AI와 하게 됐다. 옥주현은 "승부를 떠나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과 모창 대결을 한다는 데 만족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옥주현의 목소리를 10만번 학습한 모창 AI와 옥주현이 함께 노래를 한다면, 과연 진짜 옥주현을 찾아낼 수 있을지 궁금증이 쏠린다.

골프 AI 엘드릭의 도전을 수락한 골퍼는 LPGA 우승 25회, 명예의 전당에 빛나는 박세리다. 박세리는 "힘과 정확성 면에서는 기계가 우세할 수 있지만, 변수가 많은 골퍼에서 상황 대처를 과연 인간보다 잘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은퇴한지 4년이 지나 오랜만에 필드에 나서게 된 박세리는 AI의 도전을 수락한 직후 곧바로 연습장으로 향했다는 후문이다. 1998년 IMF 시절 US오픈 우승으로 전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던 박세리가 코로나19에 지친 이들을 위해 대결에 나선다.

얼굴 표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심리인식 AI와 전설의 프로파일러 권일용이 대결을 펼친다. 제작진이 심리인식 AI에 맞선 인간 대결자로 고심 끝에 찾은 상대는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파일러 권일용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출연 자로 유명한 그는 2500여건의 살인 사건에 참여했고 그 중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등 연쇄살인범들을 포함한 1000여명의 범죄자로부터 자백을 이끌어낸 프로파일러다.

100만원의 투자금을 10년 만에 70억으로 불린 전설의 투자가이자 한달 최고 수익률 900%를 자랑

하는 한봉호 대표가 '주식투자 AI'의 도전을 받아들였다. '마하 세븐'이라는 별명답게 그의 투자 방식은 거침 없다. 동학개미들의 존봉준 '종리'와 황금순 '김명환' 프로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주식 AI와 1억 원의 투자금으로 한 달간 실전투자 대결을 벌인다.

유일한 외국인 대결자인 로이스 김슨은 범인을 잡는 아티스트다. 그녀는 38년간 5천여건의 몽타주를 그려 1300여명의 범인을 잡아내 기네스북에 오른 것으로 유명하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에 직접 오지는 못하고 미국 텍사스에서 이원 현지 중계로 오디오몽타주 AI와 대결을 벌인다.

방탄소년단, '가온차트 뮤직어워즈' 앨범상 등 6관왕

음반제작상은 창모가 받아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제10회 가온차트 뮤직어워즈 주인공이 됐다. 방탄소년단은 13일 오후 열린 시상식에서 올해의 리테일 앨범상 등 총 6관왕을 안았다. 올해의 음원(2월, 8월, 11월), 올해의 음반(1분기, 4분기)도 가져갔다.

방탄소년단은 영상을 통해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노래와 퍼포먼스를 잘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상까지 받게 돼 기쁘다. 의미 있는 상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노래를 사랑해준 아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방시혁 PD님과 모든 빅히트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올해의 음반제작상은 창모와 엠비선뮤직에게 돌아갔다. 창모는 소감에서 "매인 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 이 앨범을 만들었을 때 회사와 함께 만들었다고 생각했다"며 "스타일의 에너지가 다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 같다"고 떠올렸다.

아이유는 올해의 음원(6월), 올해의 통런 음원상, 올해의 작사가상 등 3관왕을 차지했다. 아이유는 "에잇" 프로듀싱을 해주신 방탄소년단 슈가에게 감사하다. 가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



게 생각하는 것이 통런인데, 이런 상을 받아서 너무 좋다. 올해 새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상이 동기가 돼서 더 매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뻐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음원 부문은 12월 레드벨벳, 1월 지코, 2월 방탄소년단, 3월 엔씨더맥스, 4월 오마이걸, 5월 아이유, 6월 블랙핑크, 7월 지코, 8월 방탄소년단, 9월 청하·크리스토퍼, 10월 블랙핑크, 11월 방탄소년단이 각각 수상했다.

피지컬 앨범 부문에는 방탄소년단(1·4분기) 외에 2분기 엑소 백현, 3분기 세븐틴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의 신인상은 디지털 음원 부문은 그룹 '에스파', 피지컬 앨범 부문은

그룹 '엔하이픈'에게 돌아갔다. 월드루키상은 있지와 에이티즈가 안았다.

올해의 핫퍼포먼스상은 아이즈원, 스트레이키즈가 차지했고 올해의 해외 라이징 스타상은 톤즈 앤 아이, 올해의 소셜 핫스타상은 블랙핑크가 받았다.

뮤빗 글로벌보이스상은 임영웅과 블랙핑크 뭉이었고, 올해의 포퓰러시상은 황인욱, 올해의 발전상은 영탁, 올해의 탑 키트 셀러상과 월드 뮤직스타상은 NCT가 가져갔다.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과 '있지' 멤버 리아가 사회를 본 이날 시상식은 엠넷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무대 공연 없이 시상만 진행했다.

'미장센단편영화제' 올해 안 열린다

지속 여부 추후 공지

신예 감독 등운문 역할을 해온 미장센단편영화제가 20주년을 맞는 올해 문을 닫는다.

미장센단편영화제 집행위원회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20주년을 기점으로 영화제 형식의 페스티벌을 종료한다"며 "올해 경쟁 부문의 공모는 없으며 20주년을 기념하는 간단한 프로그램만으로 치러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작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의 유행과 극장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속에서 앞으로 단편 영화는, 또 영화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새로운 형식으로서의 전환을 통해 지속해 나갈지 여부는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